

공공의료본부 단독 홈페이지
'서남동행' 오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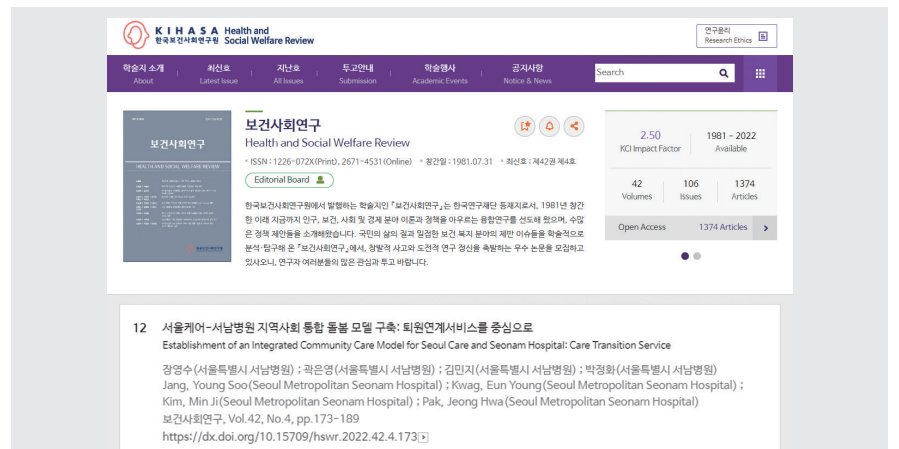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공공의료본부는 지난 2월 15일(수), 국내 42개 지역책임의료기관 최초로 공공의료본부 단독 홈페이지 '서남동행' 사이트를 정식 오픈했다.

‘서남동행’ 홈페이지에서는 서남권 보건·의료협력 네트워크 관계자, 공공의료서비스 수요자를 대상으로 본원이 수행 중인 다양한 공공의료사업 소개,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한 온라인 신청 등 기능을 담았다. 또한 공공의료본부 활동 소식을 담은 〈서남동행N〉도 정기적으로 게재될 예정이다. ‘서남동행’ 홈페이지 오픈을 통하여 서울 서남권 공공의료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소통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장성희 병원장은 “서남동행 홈페이지를 통해 온·오프라인 경계를 뛰어넘어 시민 누구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케어-서남병원 '퇴원연계서비스'
연구논문, 보건사회연구 학술지 게재



지난 2월 6일(월),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공공의료본부(본부장 장영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사회연구' 학술지를 통해 '서울케어-서남병원 퇴원연계서비스'에 대한 논문이 게재됐다.

이번 논문에서는 기대수명 증가와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고령사회로 급격하게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Community Care 실현을 위한 추진방향을 제시한다. 이번 연구를 위하여 본원 입원환자 4,618명의 전자의무기록(EMR) 자료를 활용해, 의료적·사회적 욕구를 지닌 ‘복합욕구군’의 일반적 특성과 사업 동의자의 퇴원 요구도 평가 결과를 분석했다. 한편 해당 논문은 그룹웨어 게시판, 한국보건사회연구원(www.kihasa.re.kr/hsw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공의료사업실이 들려주는 '퇴원연계서비스' 이야기

글 공공의료사업실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공공의료사업실은 퇴원연계서비스를 통해 퇴원환자의 안전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퇴원연계서비스는 의사, 간호사, 의료사회복지사 등 분야별 전문가가 팀을 이뤄 보건-의료-복지를 지원하는 통합돌봄서비스입니다.

지난 2월 10일(금) 오후, 작년 가을 공공의료사업실을 통해 지원받은 A 씨가 건강한 모습으로 공공의료사업실을 찾아주셨습니다.

비용 부담으로 치료를 받지 못해 본원 응급실을 통해 입원했던 A 씨. 가족들과 연락도 단절된 채 일용직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모텔과 노숙생활을 전전하던 A 씨는 의료비 마련을 할 수 없어 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A 씨를 담당한 의료사회복지사에게 당시 상황을 자세히 들어보았습니다.

“환자분과 상담하면서 퇴원하고 잘 지내실 수 있는지 파악하는데요. 이분은 거주지도 없고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보니, 퇴원 후 사회복귀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거주지 문제부터 해결해 드리려고 했죠. 물론 환자분도 안정적인 주거지를 원하셨고요.”

이처럼 의료사회복지사는 환자와 면담을 통해 환자가 처한 상황과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고, 안정적인 퇴원을 위한 디딤돌을 하나씩 쌓기 시작했습니다. 구청, 주민센터와의 연계를 통하여 의료비와 생계비를 지원하는 긴급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고, 퇴원 후 거주할 수 있는 임시 거처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진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인근 병원을 알려드리고, 담당 공무원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이어 나갔습니다.

A 씨는 퇴원 후 외래진료를 올 때마다 감사의 인사를 건네고 가셨습니다.

“살면서 힘든 일이 많았는데, 의료사회복지사 선생님이 노숙인에 대한 편견 없이 봐주시고 다방면에서 힘써주셔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공공의료사업실은 앞으로도 환자가 지역사회에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퇴원연계서비스' 진행절차



의료진
의뢰



참여의사
확인



건강상담 및
복지상담



건강교육 및
자원 연계

퇴원 및
방문진료 간호